

# 충남인의 돌봄 안전망

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송 미 영

# CONTENTS



- I . 돌봄 울타리의 변화: 가족의 틀을 넘어**
- II . 2040 충남, 품위 있는 노년을 그리다**
- III . 빈틈없는 돌봄, 공동체에 답이 있다**
- IV . 2040 돌봄 안전망: 세 가지 이야기**

# I. 돌봄 울타리의 변화

: 가족의 틀을 넘어

CWPD

## 돌봄 율타리 변화: 돌봄의 사회화

- 생애 어느 지점에서 누구나 돌봄이 필요. 시기와 정도차이  
돌봄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데운다'
- 지속적인 건강한 성장과 발전은 돌봄의 토대 위에서 가능  
돌봄 수준은 우리 삶의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는 거울
- 돌봄은 어느 한 시점, 한 대상에 국한된 문제가라기보다는  
보편적 시민의 이슈(Kitty, 199)  
이런 이유로 미래사회에서 더욱 급속히 사회화 될 예측,  
돌봄이 사회적 자원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임

## 돌봄의 사회화 - 돌봄의 사회적 책임

- 모든 이가 돌봄의 능력을 갖추고 보살피는 관계에 적절히 참여할 것을 요구(낸시 폴브레, 2007)
- 양육과 문화, 소프트웨어와 돌봄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성숙한 시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공동체적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바꾸어 내는 것임
  - 지역의 공동체적 기획 : 공동육아, 작은 학교, 요양시설 등 [조한혜정, 2006]

## 돌봄 울타리의 변화: 사회적 돌봄의 지역화

-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공존하는 충남의 미래  
‘아이 돌봄과 반대로 노인 돌봄 부담은 참을 수 없는 분노, 공포, 수명연장에 대한 저주 !
-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가족, 친구, 동료 중에 노인돌봄에 대한 부양부담으로 인생의 어려움 겪을 수 있음  
사회적 차원에서 나이 듦을 배우고, 나이 듦의 두려움 꺼내기
- 가족을 넘어 느슨하지만 친밀한 지역공동체의 역할 중요  
정부의 공적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돌봄 틈새를 지역 공동체들이 메워가야 함

## 지역공동체의 발견과 돌봄 가능성

- 지역사회 주민들간의 정서와 경제적 자원이 공유되는  
생활공동체, 그 가운데 마을, 마을 속에 삶의 과정이 있음
  - 학생, 회사원, 청년, 주부, 할아버지 등 마을에서 생산하고  
배움 → 건강한 마을살이와 튼실한 마을 살림을 꿈꾸는  
중심에 돌봄이 있음
- 지역사회 돌봄(Community Care): 시설중심의 돌봄서비스  
보완으로 시작, 최근 돌봄 공백을 해결해가는 힘을  
지역공동체에서 찾기 시작함(성미산 마을, 재미난마을 등)
- 육아, 양로, 교육, 주거 등 다양한 돌봄의 문제를 지역사회를  
통해 풀고 있음. 지역과 돌봄의 결합, 지역에 맞는 모델?

# Ⅱ. 2040 충남, 품위 있는 노년을 그리다

CWPDI



## 정든 곳에서의 노화 (Aging in Place)

- 인구고령화를 새로운 성장기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. ‘장수’ 라는 선물, ‘건강하게 나이 들기’
- 지역적 차원의 포용적인 돌봄(Inclusive Caring)
- 정든 곳에서의 노화 : 지금까지 살아온 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 / 지금까지의 삶이 지속할 수 있도록 일상적 돌봄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
  - 1980년대 뉴질랜드에서 시작
  -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가능한 이주를 덜하도록 돕는 것
  - 좋은 돌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손실예방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것

##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

- 2040년 충남은 지역사회에서 노인 거주 및 돌봄이 가능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지역적 합의가 상식이 됨
  - 충남의 이미지는 보수적 → 진보적, 개방적,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으로 변화됨
- 노인 돌봄 인력 처우 우수, 노인 돌봄서비스 질이 매우 높음
- 노인 자택거주, 부분 돌봄, 전체 돌봄 시스템 체계화
- 충남은 치매지역책임제 정책 확산, 다양한 치매 돌봄 서비스, 틈새시간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되어 주부양자 부양부담 거의 사라짐

## 대화가 있는 황혼 : 노인 자살율 0%

- 자녀 및 가족에게 경제적 부양부담 주지 않는 친환경 노인행복정책(주거정책)이 노년기 삶의 질 높여줌
- 음식, 청소 등 로봇이 일상생활 지원하여 시간적 여유 많음
  - 친구, 이웃들이 있어 대화, 여행, 식사 함께, 외로움 제로
- 반려동물(pet therapy)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 !!
- 경로당 여가프로그램, 텃밭 가꾸기, 사회적 경제(일자리) 등 노년 문화, 노년 일터, 노년의 삶 형성
- 모든 마을, 독거노인의 외로움 해소 및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보장, 노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서비스

Ⅲ. 빈틈없는 돌봄,

공동체에 답이 있다

CWPD

## 공동체에 의한 돌봄이 곧 공동체를 위한 돌봄

- 지역공동체 돌봄 :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의존성을 줄이고, 공유재 관리, 사회적 경제, 자율적 공제조합 방식의 복지를 지향하며, 주민들의 생활공동체가 복지의 한 축으로 가능 [김형용, 2016]
- 지역공동체 돌봄 생태계 활성화하기 위한 요건
  - 주민과 돌봄대상자를 지역사회 돌봄 관계망(마을복지위원회, 돌봄품앗이 학교 등)을 통해 연결
  - 돌봄 공동체를 이끌어 갈 리더(돌봄감수성) 양성 및 역할
  - 주민자치조직 리모델링 등 컨설팅하는 중간지원조직확대
- 공동체 활성화는 공동체를 위한 돌봄 확장, 질향상, 예산절감

## 자치와 연대로 매듭짓는 돌봄의 안전망

- 지역사회를 통한 돌봄은 참여자들 간의 공동체성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하느냐가 핵심
- 공동체를 통한 돌봄은 지역의 자원과 주민참여를 동력으로 하고, 지역의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창의적인 발상과 실험적인 시도 필요
- 총남, 마을 만들기, 농촌개발사업, 지역사회 복지사업, 주민자치사업 등 협동조합,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형태의 돌봄 사례 생겨남
-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은 마을단위: 독거노인공동생활제도 보육품앗이, 공동육아조합, 농번기 주말 돌봄방 등

# VI. 2040 돌봄 안전망

: 세 가지 이야기

CWPD

## 2040 돌봄 안전망 1: 돌보는 사람이 행복한 충남

### ● 돌봄 시간과 돌봄 네트워크의 보장

- 노동시간 유연화, 일·생활균형 문화 확산
- 지역사회 돌봄 환경 조성 방안
- ◆ 휴식공간 및 소통공간 마련
- ◆ 직장에서도 일생활 균형 지원, 남녀 평등문화 정착
- ◆ 가족내에서 성평등한 가족문화, 남성의 적극적 돌봄참여

### ● 돌보는 사람을 위한 돌봄의 필요

- 돌봄 노동자 : 처우개선, 조례제정, 돌봄종사자지원센터
- 가족 돌봄자 : 돌봄자지원법(영국), 돌봄네트워크 확대



## 돌봄 안전망 2: 생활하기 좋은 마을의 시작 ‘돌봄 품앗이’

### ● 주민자치에 의한 돌봄 품앗이

-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방식, 지역공동체(주민과 이웃 참여)로서의 돌봄

### ● 지방정부의 정부육아정책 패러다임 변화

- 지역사회중심의 육자지원으로 정책적 접근[건가법, 가족친화법(지역사회차원 분담, 시설과 공간 충족, 마을마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, 주민들 돌봄품앗이 등

### ● 충남형 돌봄 인프라 준비에 박차를

- 지역단위 돌봄 품앗이 양적 확대, 여건조성(주민리더 양성, 공간마련,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 등)

## 2040 돌봄 안전망 3: 1차 의료의 꽃, 주치의 제도

### ●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

- 건강보험 인프라가 훌륭하나, 1차, 2차, 3차 의료전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1차의료인, 주치의 제도가 없기 때문

### ● 1차 의료의 꽃, 주치의 제도

- 최초접촉 및 진단, 조정기능[판단], 지속성[관계], 포괄성[정보],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성[개별진료 및 연계]
- 1차 의료에서 환자와 2,3차 병원과 지역사회 연결, 조정
- 비용절감, 건강수준 향상, 입원과 외래 방문율, 검사 및 시술횟수, 약품처방 낮춘다는 보고가 있음



| 감사합니다.

CWPD